

대담 '참불자의 조건과 자세'

강복수 영남대 의대학장



시공을 초월 삼귀의 오계등 불교의 정신 한결같은 것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자동차라도 실선의 원동력인 연료를 갖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화려한 자동차가 진리라면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는 신심이고 실제로 움직여 나가는 것은 바퀴라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바퀴는 움직일 수록 달게 마련인데 그것이 바로 회생과 통사의 정신이 아닐런지요.

믿음-실천 조화 이룰때 '참불자'

대학시절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활동을 하며 불교에 귀의해 대불전 전국 부회장을 맡으며 청년불교 운동을 일으키고 현재는 영남대의료원 불교신행회를 이끌고 있는 강복수학장(54세)은 불자로서 의학자로서 또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길을 걸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충족하고 마는 것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공부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학도가 의술을 배워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론과 실제상황이 다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많은 불자들이 자신이 불자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지만 실제로 불자다운 삶을 영위해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기복적이거나 '삼귀의' '오계' 같은 실천 지침들이 잘 지켜 지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불교신행의 형태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신행환경 속에서 불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저는 '분리된 생각'을 꼽고 싶습니다. 불교의 모든 교리나 사상체계는 이론적인 면보다 실천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불자들이 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하나의 진리가 진리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이치의 실행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지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필립 살아 움직이는 불교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기본 자세가 '이 가르침을 나의 생활로 승화시키겠다'는 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적인 변화를 수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문명의 발달은 맹목적인 신앙의 폐단을 벗겨주는 역할도 한다고 볼 때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신행활동을 보다 여법하게 이끄는 외적 요인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를 믿는 근본 정신, 즉 자리타(自利利他)의 정신과 수행의 자세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언제나 한결 같듯이 우리의 신행 생활을 지탱하는 근본 이치도 불변한 것이니까요.

불교의 교리나 사상을 배워서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라는 인식을 갖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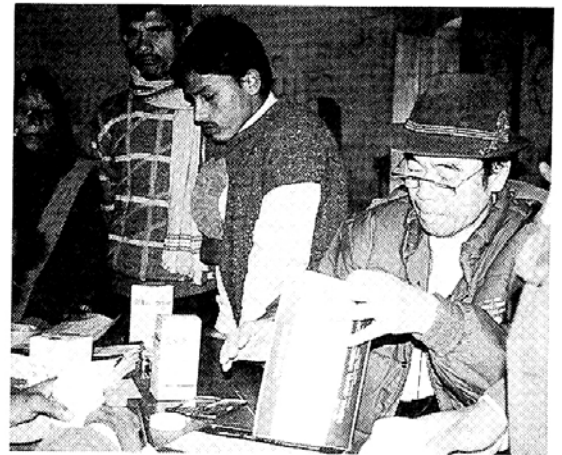
오래동안 신행활동을 해 오셨으니까 절실히 느끼셨겠지만,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보살정신을 실현하기가 힘듭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신심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진리를 가르쳐도 그것을 진리라 믿지 않으면 실천은 따르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이중 더 중요한 것을 굳이 말하라면 실천하는

이 역시 불자의 참된 조건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기인되는 현상일 뿐입니다. 불교에 입문했다면 어느정도 교리적 소양을 갖추고 자신의 근기에 맞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나 같은 의료인의 경우 환자를 잘 돌보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학문적 관심이나 직업적 행위를 앞선 보살행의 실천이라고 믿는 마음이 중요하합니다. 자신의 생활 현장에서 펼칠 수 있는 보살행에 매진해야 합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 생각하는 생각만 있으면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행은 이뤄 질 것입니다.

대담=이윤호 기자

사람 살리는 직업 '의사'일로 이미 불자계중 불살생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 불교복지시설 광명보육원을 20년 넘게 후원해왔으며, 우리나라 돌부처 상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연구해온 사람, 그것도 부족해 10년째 해마다 한달 동안 네팔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의료봉사 활동으로 매년 한달씩 부처님 나라 네팔서 사는 이근후박사. 이때 '비타민회' 등이 정당한 비타민이 의료 활동에 큰 도움을 준다.

'공동체 삶' 이끄는 이근후 교수

10년째 네팔서 '한달 인술' 석불연구·불교복지 '헌신'

'공동체' 형성을 실천하며 알차게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크게 내세우지 않고, 언제나 정직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박사는 무슨 일이든지 공동으로 더불어 이뤄낸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정성과 신심으로도 큰 일을 일궈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눈높이'인 것이다.

료화하고 매달 회지를 통해 세상사람들에게 공개 친절하게 한다. 그래서 노상에 혹은 산속에 방치된 전국의 석불 대부분은 그의 카메라에 자료로 저장돼 있다. 전문가답게 석불을 통해 한국인의 심성을 연구하면서 무종교인도 자연스레 부처님을 존경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또 무하시랑방 회원들과 한울타리에 사는 광명보육원생들을 위한 잔치를 매달 제4토요일에 열고있다. 선물과 음식을 차

려놓고 벌어지는 이 자리는 원생들도 사랑방회원들도 모두 각자 위치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옹중지 그르지 관찰하게 하는 장이 된다는 것.

그는 부처님나라 네팔 사람들 '늘 그리운 사람'으로 부른다. 봉사단원들과 매년 벌이는 네팔 의료봉사활동에 '비타민회' '비타민회'를 포함시켜 적극 권하고 있다. 1만원을 내면 비타민회원이 되는데, 그렇게 장만한 비타민은 네팔인들의 웬만한 치료혁신제로 터할 나위없다는 의사로서의 진단에서다.

참불자의 길을 가는 이근후박사에게는 항상 선우들이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도 참불자에게 된다.

위령관 기자

참불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주부 환경운동가 이병순 씨



갖게 된 것은 외국생활 끝에 돌아온 고국의 무질서한 쓰레기 무기를 보면서이다. 귀국하던 95년5월 유명무실했던 아파트 부녀회를 '환경을 생각하는 부녀회'로 재조직해 쓰레기 분리 배치를 시작했다. '이미 불교에서는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스님들의 발우공양 정신이죠. 환경친화적일 수밖에 없는 불교의 생활법이라는 생각이

갖게 됐다. 지난해 여름부터 고려대 사회교육원에서 노인복지 전문가 과정을 이수 중인 이보살은 올해 3월엔 한림대 사회복지대학원 노년학과에 입학 본격적인 노인복지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불교공부 또한 빼놓지 않는다. 불교대학 2기 과정을 이수한 것, 고등학교 때부터 조계사에 다니면서 불교공부를 하던 절친한 친구가 82년도에 선출한 <반야심경입문>을 읽고 불법의 오묘한 세계에 빠져들었다. 외국 생활을 하면서는 '처처법당'이라는 말을

'발우공양 정신 새기면 음식쓰레기 못버려요'

니다'며 불자들이 환경을 살리는 방법은 고래로 전해내려오는 불교적인 생활방식에서 이미 드러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쓰레기 A/S 박사라는 별명을 가진 이보살이 관심을 가진 분야는 환경문제만이 아니다. 고등학교 국민윤리 교사생활을 했던 70년대에는 청소년 선도위원을 했고, 외국생활을 하면서 자원봉사에도 관심을 가졌다. 96년 여름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창단멤버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이씨는 저소득층 노인의 욕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노인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슴에 담고 집에서 열심히 불교공부를 했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본 세 딸들도 불교적인 생활을 거르림 없이 받아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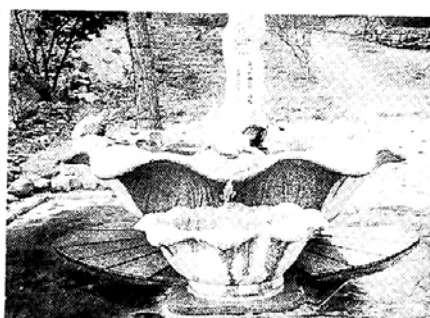
"즉시현금 경무시절(卽是現金 更無時節, 바로 지금같은 시절은 다시 없다)"이란 어구를 어느 공책이나 적어놓고 마음이 비어있는 듯 허전할 때마다 읽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불자임을 새록새록 되새기죠."

김지연 기자

석불, 천불전, 만불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들...

일·심·석·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든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작품 실적

- 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초부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벌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전 완성
● 현재 좌불 만불전 조성중



기능올림픽 수상

전국 각 시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53-7527 F)0653-53-7527 자 택 : T)0653-833-4850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표 김 옥 수 합장

절·염불·독경·참선·기도

상천배를 108일, 하루 만백씩 100일간 10만배, 삼년동안 정지 않고 석가모니불 염불경전, 한문금강경 삼만독, 한글 금강경 일만독 수행하며 터득한 수행의 비전을 태극복을 공개 수행합니다.

-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①숨이 차고 험덕대며 절하는 것은 마음이 크게 흔들림으로 정신 집중 안되고 폐와 심장 등의 신체에 무리가 오는 어리석은 수행이다. 들숨과 날숨을 전 동작에 정확히 대입하여 자연 단전 호흡되면 실천매를 하여도 숨차지 않고 힘들지 않으며 절상매 이루고 강력한 기운의 집중과 방출로 입성 감기, 몸살 안걸리고 당도, 치매, 중풍은 예방되고 치유된다.
②염주들고 숫자세고 시계보면서 절하는 것은 바보같은 수행이다. 호흡과 동작이 숫자를 대입하면 자동으로 헤어져지며 정신 집중이 좋아져 생각이 드뭇드뭇해지고 기억력이 상당히 향상된다.
③항상하고 절할때, 일어설때 우주의 밝은 기운이 몸에 쌓이는데 염불하면서 절하거나 입별리고 절하면 기운이 빠져나가 몸이 흔들리고 힘이들며 몸살나게 되니 허 입천장에 맡아붙여 단전에 쌓인 기운을 유통시켜야 생각이 나게 된다.
④요가, 선체조, 기공체조, 단전행공, 명상체조보다 동작과 호흡의 일치와 전혀 무리없이 쉽게 관되며 장소 구애 없이 단전비, 시간남비 않으며 지극한 신심이 중대되고, 단기간에 효과 발휘하는 최고의 건강법이며 만인류는 필히 실천해야 할 수행법이다.
◎염불 열아 정진
올바른 자세가 계속 유지됨으로 졸림지 않고 피곤하고 지치고 피로하지 않으며 갈수록 정신은 맑아지고 자동으로 염불되고 자동으로 단전 호흡되어 힘이 넘치게 되는 가장 쉽고 언제나 실천 가능한 수행법이다.
◎참선 기초수행, 파선호흡법, 염력기도법, 신비의 도인건강법

- 월~금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 기본수행법 수업
● 매주 토요일 저녁9시~일요일 아침 8시 철야용맹정진
● 예약수련, 넉넉한 복장, 수련회비

아름다운 소리산 법왕정사 수행원
물맑고온 소금강
경기도 양평군 단원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 (0338) 71-7745(수행성담시간 오후 5시~8시)

第7回 行願文化賞 公告

本 財團에서는 毎年 佛教 文化 發展을 위하여 優秀한 業績을 이룩하신 분들을 찾아 褒賞하고 있어오니 다음 要領에 따라 많이 薦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with columns: 文化賞區分, 對 象, 人員, 褒賞內容. Rows include 譯經賞, 文學賞, 藝術賞.

- 1. 施賞部門
2. 具備書類: ① 推薦書(指定樣式) - 1通
② 功績書(具體的 內容) - 1通
③ 履歷書(名刺判寫眞 3枚) - 1通
④ 功績證書資料(最近 2年 이내 實績物) - 1通
3. 推薦마감: 1998年 6月 30日
4. 審査 및 發表: 本 財團에서는 委嘱한 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受賞者에게 個別通知 및 佛教新聞 新聞 發表
5. 施賞日: 1998年 9月 24日 木요일
6. 문의처: (우) 136-075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6번지 중앙승가대학교 기획실
☎ 02)926-4377 FAX : 921-9721

1998年 4月 日
財團 行願文化財團
理事長 朱永云